

발행처

한국여성개발원

발행인

서명선

발행일

2007년 3월 30일

실무위원회

문유경(위원장)·김경희·김종숙
김혜영·박선영·황정미·황정임

편집인

문유경

기획 및 편집

강민정·정혜선

디자인

디자인이즈 02-2122-2000

출력

예کم 02-335-3044

인쇄

삼광프린팅 02-3158-4415

젠더리뷰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원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002 편집자의 글 | 문유경

기획 특집

기대와 우려 : 2007년 여성정책을 본다

004 비정규직 관련법과 여성근로자 | 김종숙

014 보육정책의 과제: 어디로 가야 하나 | 유희정

022 제자리를 찾아야 할 여성결혼이민자 정책 | 김이선

032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은 가능해지는가 | 김혜영

이슈 브리프

044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개관 및 함의 | 조형석

050 여성의 비만과 사회환경적 요인 | 김영택

055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 개정 내용과 의의 | 박선영

통계 분석

060 여성의 건강 행태 | 전기택

066 2006년 여성고용동향 | 주재선

073 여풍? 아직은 불균형! | 전기택

동향 정보

080 주요여성정책

092 지역동향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100 국제동향

연구 노트

114 창업을 희망하는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방안 | 황정임·류연구·류만희

116 혁명적 가족관계를 위한 가족정책과제 | 장혜경

119 블루오션 '여성기업'의 금융지원 방안 | 임희정

122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 정진주

125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한국 여성 | 김남희

주요 통계

128 2006년 여성고용동향

137 성별 국가고시 합격 추이와 공무원 직급별 분포

140 산업과 직업의 여성 비율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산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많은 이들이 봄을 즐기는 이유는 자연의 소생에 힘입어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을 얻는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번 호는 봄을 맞이하여 올해에 새롭게 진전될 여성정책 중 특히 기대와 우려를 받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꾸려보았다.

본원 김종숙 고급여성인력혁신전략센터 소장이 집필한 “비정규직 관련법과 여성근로자”는 2006년 1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법이 노동시장 여건과 근로자의 노동수요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여성 근로자가 경험하게 될 고유의 경험을 전망하고 있다. 결론에서 필자는 동 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들의 정규직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동시에 임신이나 출산 등 여성근로자가 처하는 고유의 상황이 이들의 고용지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유희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정책연구팀장의 “보육정책의 과제: 어디로 가야 하나”는 왜 보육정책이 여성정책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급속히 확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와 병행하여 보육정책의 방향과 목표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보편성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감에 따라 사회적 보육기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건수는 1990년만 해도 60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31,189건이라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원의 김이선 연구위원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이 새로운 여성정책의제로 부상하고 있고, 여성결혼 이민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동시에 의제 형성과 정책개발, 추진이 진행되면서 역설적으로 프로그램이 풍성하지 못한 ‘외화내빈’ 현상을 비판하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원 김혜영 연구위원은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은 가능해지는가”라는 글을 통해 기존의 관련 정책이 올해 어떻게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올해의 지원정책들이 경제적 과장이 예견되는 재정지원책보다 과거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제도화된 지원책을 확대하고 정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책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줄기와 같이 밑에서 정책을 받쳐주는 뿌리가 넓게 퍼져있어야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성정책 역시 외형적으로 훌륭하지만 아직 일반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부족한 상태이다.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그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여성정책 담당자들에게 남겨진 몫이라 생각한다.